

◆ 교회목표 ◆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13)

발행처: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 신성종 편집인: 우기진 편집국장: 조선근

새가정부에서 전 교인 대상으로 '가정 세미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가정”

가정 사역 전문가들을 강사로 초빙, 5월 한달동안

성큼 다가온 무더위로 '신록의 5월' 이라는 신선한 분위기가 사라졌지만 매년 찾아오는 5월은 가정에 대한 생각을 갖게 하는

까지 오고 있다.

새가정부에서는 결혼과 가정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과 동일한 상황에 있는 가정

동안 매주일 특강시간을 마련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는 주제하에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는 가정사역전문가들을 강사



주 수 일 장로



김 수 지 교수



박 정 규 목사



나 연 숙 권사



윤 영 탁 목사

달인 것만은 사실이다.

일반 사회에서도 5월은 가정의 달로 정하고 각종 행사와 세미나 등으로 온통 가정 이야기가 만발하다. 급변하는 사회에 유엔이 정한 '가정의 해' (The Year of the Family) 이기에 더더욱 그럴 것이다.

이는 가정의 중요성을 모두 공감하고 가정을 바르게 세우는 의도에서 행해지는 일련의 몸부림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에 비해 실제로 가정이 바르고 건전하게 세워지는 일은 또 다른 일인 것 같다.

교회에서도 가정의 문제가 가지는 중요성은 더더욱 크다. 가정이란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리 교회는 1979년에 결혼한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하여 모이는 교회학교 새가정부를 개교하여 지금

까지의 교제 등을 통해 새로 시작하는 가정을 주님 안에서 경건하고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일과 부부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자녀 출산에 따른 문제 등을 적절하게 말씀 안에서 이해하고 대응하는 교육과 훈련들이 행해지고 있다.

새가정부를 거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새가정부의 중요성을 말하고, 현재 회원들도 만족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새가정부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다.

교회는 5월을 맞으며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둘째 주(5월 8일)은 어버이주일로 각각 지키며 가정과 부모, 자녀 등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새겨보는 시간들을 지며 또한 각 전도회에서는 5월 중 가족모임을 계획하기도 한다.

한편 교회학교 새가정부(부장 박승준 장로)에서는 가정세미나를 계획하고 5월 한달

로 초빙하여 매주일 새가정부실(교육관 212호실)에서 오전 11시에 모이게 된다.

충현의 부부들은 이번 기회에 세미나에 참석하여 자신의 가정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보는 시간이 된다면 큰 유익이 될 것이다. 주일별 강의 내용과 강사, 강사 프로필은 아래와 같다.

5월 1일 / 비전있는 가정

주수일 장로
온누리교회 장로, 철성섬유 대표, 가정문제 임상사역인 '사랑의집' 대표, 극동방송, CBS 및 국민일보에 가정문제 전문사역자로 출연하고 있음, 저서로는 '아름다운 가정의 비밀'.

5월 8일 / 크리스천의 부부생활

김수지 교수
남서울교회 집사,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 교수(보스턴대학 간호학박사), 현재 기독교 간호사회 회장, 진선미상담실 운영, 저서 '저는 너무 자주 화를 냅니다', '간호이론'.

5월 15일 / 사랑의 공동체

박정규 목사
새가정부지도(현재), 제6교구와 제18교구 지도목사, 성경연구원에서 부부성경공부 강의 중, '생명의 전화'에서 가정문제 상담을 통해 영적치유의 일을 맡고 있다.

5월 22일 / 하나님의 선물

나연숙 권사
할렐루야교회 영아부 부감, 다수의 TV드라마 '부부', '달동네', '약속의 땅', '보통사람들', '고향', '아망의 세월' 등 집필, 현재 '남자는 외로워' 방영중, 저서 '사도일기' (육아일기).

5월 29일 / 모범적인 가정

윤영탁 목사
본교회 협동목사, 장년부 지도, 현재 합동신학교 교장, 1979년부터 10년간 새가정부 지도, 5월 14일에 제네바대학에서 명예신학박사학위를 받게 됨.

크리스찬라이프사

사장에 손경수 장로 취임

본 교회 손경수 장로(제17교구장, 장년 1부 부장)가 지난 4월 20일부터 공보처의 허가를 받아 크리스찬라이프사의 발행인 겸 사장으로 취임했다.

손 장로는 약 26년간 기독교 언론에서 종사해 왔는데, 교회연합신문, 기독교신문, 크리스찬타임즈, 그리고 크리스찬라이프사에서 기자, 취재부장, 편집국장, 주필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한편 전 사장이었던 김차생 장로는 이병의 이사장 후임으로 이사장직을 맡게 되었다.

금주의 청지기 훈련 및 연속기도

청지기훈련 - 5월 5, 6일 양일간: 13, 14, 15교구
24시간 연속기도회 - 13교구

94년도 청지기훈련이 시작됐다. 금주의 훈련 해당자는 5일(목) 오후 6시 30분까지 교회에 집합하여 저녁식사를 하고 명찰 및 훈련복을 지급받고 인원점검 및 오리엔테이션을 한 후 오후 7시 30분에 기도원행 버스를 타게 된다.

충현기도원에 도착하여 오후 9시부터 저녁집회가 시작되어 다음날(금요일) 오후 4시에 수료식을 하고 4시 30분에 기도원을 출발하여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된다.

준비물은 성경, 찬송가, 필기도구, 세면도구이고 복장은 충현훈련복에 운동화를 신어야 한다. 접수는 교육국에 비치한 신청서 양식을 사용하면 된다.

한편 지난 2월23일에 시작한 94년 직분자 24시간 연속기도회는 금주에는 13교구가 5월 3일(화) 오전 12시부터 5월 9일(월)까지이다.



주기철 목사 순교50주년 추모예배

주기철 목사 순교50주년 추모예배가 지난 4월 21일(목) 오후 7시부터 본당에서 드려졌다. 3,000여명이 참석하여 드린 추모예배에서 김창인 원로목사는 설교를 통해 한국 교회에 "소돔과 고모라는 악인 열 사람이 없어 망했는데 우리는 자칭의민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어 하나님께 축복받고 세계에 선교하고 후손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의인들이 되자"고 간곡하게 부탁했다. 참석한 사람들은 주기철 목사와 같이 일사각오의 마음을 가지고 생명 바쳐 충성하며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1. 갯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갯세마네 동산은 감람산 위에 있는 개인의 정원입니다. 이 갯세마네라는 이름은 기름을 짜는 틀(oil press)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에는 감람나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후에 디도가 이곳을 점령했을 때 모든 감람나무를 자르라고 명령했지만 지금도 그곳에는 예수님 당시의 감람나무라고 알려진 감람나무 서너그루가 남아 있습니다. 감람나무라는 이 번역을 정확하게 한다면 올리브나무입니다.

어쨌든 그곳에는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름짜는 틀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이 갯세마네 동산에서 그의 땀을 짰습니다. 예수님께서 땀을 짜면서, 아니 그에게 임박한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그 땀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곳에는 지금도 땀흘리는 교회(The chapel of the sweat)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벼룩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고민이 되어서 죽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당시의 형편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갯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이때에 예수님은 더욱 외로웠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기도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도에서 예수님의 외로움과 함께 예수님께 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고민하시고서도 죽음을 앞에 놓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 갯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특징

첫째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했다는 점입니다(막 14:36). 여기서 '아바'라는 말은 아랍어로 '나의 아버지, 나의 아바, my daddy'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흔히 기도하듯이 그렇게 장황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을 부를 때에 너무 형용사가 많습니다. '거룩하시고, 천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물론 그것이 그렇게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개 보면 확신이 없을 때 형용사를 많이 붙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정말 확신이 없는 부를 수 없는 칭호입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아들이 자네 때 혹은 아침에 눈을 떠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 부르는 바로 그 칭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신뢰가 얼마나 철저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간절히 기도하셨다. 특별히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눅 22:41, 마26:39). 기도하는 자세는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무릎을 꿇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었다는 것은 지면 22면 6절의 말씀처럼 별레처럼 땅위에 엎드렸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나는 별레와 같습니다. 나는 그저 전적으로 당신에게 의지합니다' 하는 간절한 기도의 표현입니다. 간절함, 이것은 기도에서 참으로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쏟아 놓았습니다(39절). 그리고 권좌를 내 나이가까 예수님은 '자네의 어떤 것을 이루려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면서 그는 아버지께 뜻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했습니다. 요절인 39절의 말씀 그대로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음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하는 우리의 기도의 자세와 기도의 내용을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넷째로 예수님의 갯세마네 기도예배의 특징을 보면 예수님은 확신을 위해서 반복해서 기도하셨습니다(39-44절). "나

아가 세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기도를 세번 반복했습니다. 성경에는 중언부언 하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과 중언부언해서 기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귀를 의식해서 그 마음을 살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아무리 반복을 해도 중언부언의 기도는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반복적인 기도를 해야 합

충현강단



갯세마네의 기도

(마 26:36-48)



신 성 종

<목회·당회장>

니다. 예를 들어서 주기도문은 우리가 반복적인 기도를 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이루어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3. 예수님께서 고뇌에 찬 기도를 할 때 제자들은 무엇을 했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갯세마네 동산을 올랐을 때, 예수님은 그들이 깨어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예수님과 함께 기도를 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보면 그들은 명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잠을 자고 있었습니까. 이 나타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번 에 창창에 가보니까 물망구갈(勿忘구갈)이라는 박물관에 있었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저기에 창창은 뿌려질 때 나라가 망하고, 물망은 나라가 망할 때, 창창은 분열이 될 때 나라가 망한다고 나라가 망하는 세 가지 이유가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적인 신앙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망할 때 그때부터 망하게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적으로 나타났고 잠을 잤던 것입니다. 조금전까지만 해도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골고다까지라도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장담하면서 큰 소리를 떠났던 그 제자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가 됩니다. 그들은 그 결과로 산란된 예수님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그런 경지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물론 피곤하기도하고 연약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잠을 잤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그들은 심령보다는 육신을 더 중요시 했기 때문에 잔 것입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해서 잔 것입니다. '설마?' 했기 때문에 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생명이 여기에 좌우된다고 생각하면 그들은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렇게 영적으로 나타낸 제자들을 예수님은 버리지 아니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셨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의 사명을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4. 본문이 주는 교훈

첫째로 우리가 곤경에 빠졌을 때에는 기도가 가장 실제적인 구제수단이라는 교훈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우리가 곤경에 빠졌을 때에 가장 실제적인 구제의 수단이 무엇이

냐? 기도밖에 없습니다. 고통은 죄 중에 있는 모든 인생이 다 마셔야 하는 잔입니다. 욕기서 5장 7절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뉘나니 불타가 위로 날을 끌으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본문 38절에 "너희는 여기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여기에 있으라,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바로 기도하는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항상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유지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나 승리할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 선생과 학생들과의 관계, 우리 교인들과 목회자들과의 관계, 정치하는 사람들과 국민들과의 관계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잘 유지될 때에, 신실하게 맺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번째로 성도들은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교훈입니다. 교회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경험 가지고, 돈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것은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24시간 연속기도, 그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번째 깨어 있어야 할 때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 실패와 낭패를 당한다는 교훈입니다. 깨어 있어야 할 때에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몬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너희를 깨어서 기도하라 명령했을 때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다른 제자들은 위험이 다가왔을 때 다 도망치고 심지어 마가는 벌거벗고 도망을 갔습니다. 이것은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에서 실패와 낭패를 당합니까? 왜 우리가 얼마간의 생활 속에서 일망과 좌절을 겪습니까?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환도뼈가 상하도록 기도하여 하나님의 추부를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항상 깨어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환난의 때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결국 절망에 빠지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의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주님과 멀어집니다. 또 환난의 때에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참침대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비결이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생명의 줄, 기도의 줄을 굳게 잡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갯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달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박 정 규

(목사, 제6교구, 제18교구, 새가정부 지도)

대부분의 자연인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의 의지와 능력이 자기가 하는 일을 성공으로 이끌어 준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을 무시하며 자신의 지혜와 능력만 믿고 무엇이나 어떻게 되든지 밀고 나가는 무지한 자의 모습과, 성공한 일이 생기면 전적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돌려 버리고 마땅히 받으셔야 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교만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나 자신을 의지하는 자의 경영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경영의 결과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본래 가정을 창조하신 뜻대로 크리스천의 가정을 세워 평강과 복된 가정을 이루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 하나님을 떠난 자의 가정

1) 자신의 지혜와 능력만 의지하는 자로 교만하고 우둔한 자이다.

자신의 실력이 그 꿈과 목적을 이루어 준다고 확신하며 자신을 의지하고 우주만물을 섭리하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마치 탕자와 같이 가장 교만하고 우둔한 자이며, 세상을 다 경험하지 못한 부족하고 연약한 어린아이가 부모님과 선생님의 가르침과 도움을 외면하고 자신의 능력만 믿고 뛰쳐나가는 어리석은 모습과 같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세상에서 자신이 갖춘 자기 실력을 의지하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의지할 때 자신의 일과 민족의 구원과 축복에 대한 소망을 온전히 이루었습니다.

2) 하나님이 섭리하고 축복하지 않는 모든 경영은 헛된 수고이다.

인간은 일시적인 풍성함의 만족을 위해 지구를 파괴했고, 편리함과 유익을 위해 만든 컴퓨터 앞에서 두려워하며 초조해하고 있으며, 자신의 보호와 힘을 과시하기 위해 만든 핵무기 앞에서 인류의 멸망을 두려워하며 헛된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공동체를 이루는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단위인 가정과 국가의 모든 질서, 조직, 통치와 가정과 사회의 번성과 부강과 안전은 하나님이 섭리하시며 축복하시지 않으면 인간의 능력과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현대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많은 문명과 풍요속에 있는 가정들이 참된 만족이 없는 갈증 속에

서 인간성 상실과 더 많은 문제와 고민들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들이 지나친 과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핵전쟁의 위협과 자아의 소외 등으로 갈등과 두려움속에 있으며 문명의 발달과 풍요속에서 인간성 상실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능력으로 완벽을 추구하지만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완전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의 축복

1) 평안의 축복을 주신다

우주를 섭리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을 기초로 삼고 수고하는 성도의 경영은 요동함이 없는 굳건한 반석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과정을 성실하고 책임있게 살아가는 성도는 어떠한 일에도 견고하고 성공하며 축복받는 삶을 누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된 평안을 얻기 위해서 물질적 소유와 쾌락적 소비를 추구하지만 이것은 마치 음료수를 먹으면 잠시 후에 오히려 갈증만 느끼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자는 자기 스스로 행복과 번영을 이루기 위해 온갖 수고와 노력을 다하여도 결실을 얻지 못하고 갈증과 고통만 가중될 뿐이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에게는 형통케 하시므로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작이 바르고 과정이 좋으면 결과는 형통의 축복이며, 성도는 자신이 추구한 결과에 대해서 항상 영육간의 평강과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후손의 축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공의와 사랑으로 가르치시고 축복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이요, 세상에는 소금과 빛의 소명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기업과 상급으로 주신 자녀를 주의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한다면 귀중한 존재로 성장하여 가정과 교회와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하게 사용되며 그 직임을 다하는 훌륭한 자녀가 될 것입니다.

(1) 자녀는 하나님의 주신 기업요 상급이다.

자녀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축복의 기업을 이을 자로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한 번성과 창대의 축복이 자녀들을 통하여 실제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는 자녀로서의 기쁨의 대상인 것처럼 부모 앞에서 자녀는 사랑의 열매로서 부모에게 기쁨을 심어주는 대상입니다. 또한 노년에 위로와 보호와 공경받을 상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순결하고 의로운 자녀들은 원수인 사탄과 악한 세력들과 말할 때에 부당하고 거짓된 고발이나 증인 앞에서도 부모를 지키며 보호하여 그들의 입을 막고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노년에 보호자요 자랑의 상급입니다.

(2) 자녀를 기업과 상급이 되도록 바르게 양육할 책임이 있다.

시편 127편 4절에 보면 자녀를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화살은 장사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이며, 활은 쏘아서 과녁을 맞추는 도구입니다. 활로 과녁을 향해 쏠 때 화살을 잘 조준하고 쏘아야 적중합니다. 이처럼 부모는 활과 같은 자녀들이 과녁과 같은 세상을 향해 빨리 출발하려 하지만 과녁에 정조준 될 때까지 하나님과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어져 세상을 향해 출발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 때에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과 부모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을 때에 모두에게 기쁨과 자랑감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랑의 터전이며, 사랑의 열매인 자녀를 양육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를 귀하게 양육하고 부모와 성도된 책임을 다하여, 혼란한 가치관과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 정조준하여, 부모를 위해 기쁨과 자랑감이 되며 복음을 위해 인류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으며 번성과 창대하는 후손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의 가정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최초의 주재자이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창조사역은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고 새 출발함으로 완성되었으며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계속되는 곳입니다.

가정은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사람이 살다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며 완전한 창조입니다.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은 인간을 완전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며 번성케 하십니다.

실로 한 개인의 건강, 한 가정의 창조

어린이주일을 맞으며

팬지꽃밭 앞에서

아이들은
꿈에 쫓긴 말간 창으로
눈부시게 빛나는
세상을 본다.

저긴 나비네 집이야
노랑나비
하얀 나비
보랏빛 나비도 있네

고운 채로 걸려낸
보드라운 바람에
꽃처럼 나비가 웃고 있다
나비처럼 꽃잎이 춤을 춘다

해님은
아주 커다란 물레
사르륵 사르륵
걸고온 금실을
끝도 없이 자아내네

금실로 곱게 수놓은
찬란한 날개 웃은
이제 막 태어난
아가 나비꺼야

아하 저기,
금빛 날개를 단
노랑나비가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나네

파란 하늘가 어디메쯤
내가 키워갈 꿈이 있노니
아이야
노랑나비처럼 날개를 달고
흰구름 숲 너머까지 날아 오르렴

변 춘 옥

(전도사, 탁아부 지도, 출판국 부지도)

한 나라의 건설, 세계 인류의 공동체의 역사를 인도하시는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으로 그분의 사랑이 없다면 인간의 계획과 수고는 헛된 것일 뿐입니다.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작하는 신앙의 길이 허무주의를 극복하는 참 비결인 동시에 참된 축복과 평강의 길로 들어서는 바른 행보입니다.

주안에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충현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정조준을 잘 하시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는 우둔하고 교만한 자리에서, 모세와 바울과 같이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된 만족과 평강을 누리는 가정들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수화찬양 지난 주일은 장애인주일이었다. 우리 주위에 있으면서도 잊기 쉬운 장애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었다. 저녁 찬양예배에서는 예배대부에서 준비한 수화찬양을 통해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했다. 소리없는 그들의 찬양 속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다함께 기도합시다

♣ 금주에 기도할 제목 ♣

1. 원로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 김창인 목사님 : 2일(월) 아세아연합신학대학 개교 20주년 기념예배 설교,
3일(화) 연례 국가조찬기도회 축도,
4일(수) 햇빛회관 부흥사연수회 특강
· 신성종 목사님 : 2일(월) 목회자세미나 강의,
6일(화) 전주대학교 개교30주년 기념예배 설교
2.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 죄악속에 죽어가는 심령들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3. '백두산 소나무 찍어 평양에 예배당을 세우고 금강산에 수양관을 세우게 해달라'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옵소서.
4. 대통령 내외분에게 믿음과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정치가들에게 바른 신앙양심을 주시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5. 오늘도 해외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과 그들의 사역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의 손길이 충만케 하옵소서.

군전도회 늘푸른 교회 봉헌예배 참석

우리교회 군전도회는 지난 4월 22일 제 00부대 제0연대의 늘푸른교회 교회당 봉헌예배에 군전도회장 김재명 장로와 7명이 참석하였다.

늘푸른교회는 지난해 5월부터 교회당을 짓기 시작하여 1년여만에 2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80여평의 교회당을 지어 매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예배당을 짓

기 위해 여러 개인과 교회들이 도왔다. 군전도회에서는 늘푸른교회당 건축을 위해 1,000만원을 헌금했다.

이날 봉헌예배에서 군전도회장 김재명 장로가 기도순서를 맡았고 교회당 건축을 도와준대 대한 감사장을 군전도회 부회장인 강철 장로가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위하여 기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곳(미국)에서 매주 화, 수, 목, 금(아침 9시~11시/2시간) 4일간 영어를 배우러 다니고 있습니다. 또 화란어는 선생님이 매주 화, 목요일에 집까지 와서 가르치시는데 최근 몇 주는 금요일도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는 수리남 교회 성도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중에 성탄카드와 조그만 선물을 준비하여 보냈으며 이곳에서는 너무나 운송비가 비싸기 때문에 \$300을 별도로 보내 현지인교회 선물을 나눠주도록 했습니다. 또 얼마전에는 저희가 출석하고 있는 한인선교교회(김대승 목사)에 달력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지난 1월 14일~25일까지 파라과이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파라과이에 있을 때 함께 믿음 안에서 교제하던 성도 가정들이 안식년중인 저희들을 만나 함께 믿음 안에서 교제하기를 계획하고 저희 부부를 초청하고 왕복 항공료는 물론 체재비 일체를 부담하였습니다. 파라과이 방문을 위해 충현선교부에 FAX로 허락을 청원했지만 아무런 답이 없었으므로 허락하신 줄로 믿고 자녀들을 다시 형님댁에 맡기고 다녀왔습니다.

마치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다녀갔듯이 저희들도 파라과이를 떠났지만 마음은 물론 지금까지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기에 감사함으로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기도만하고 4년만의 방문인데 저희들의 신앙이 너무나 성장한 것입니다. 또 현

● 수리남 안석렬 선교사 ●

수리남에 갈 날이 가까와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
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재 그들에게 신앙상담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의 방문은 너무나 필요적이었으므로 여호와이레의 뜻을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수리남 선교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하고 도와 주실 후원자들이며 뿐만 아니라 파라과이선교를 위해서도 현재도 수고하고 있으며 선교를 위해 헌신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 그곳에 미국 세라토스교회(황보연준 목사)가 저를 신학교와 학교시설을 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수리남에 유채원부터 세우고 준비하는 저희들에게 좋은 기회였습니다.

아순시온교회(김재창 목사)에서 16일과

23일 2회 설교를 했으며, 23일 저녁에는 한인 감리교회(김철기 목사)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이영인 집사 가정에서 인디언 선교에 대해 듣고 인디언 선교를 목적으로 \$4,000를 헌금해 주셨습니다.

당회장 신성종 목사님께서 이곳 웨스트민스터신학교에 오셔서 강의하신다는 소식을 다른 분을 통해 듣고 학교에 찾아가 당회장 목사님과 윤명식 장로님을 만나뵈었습니다.

한국을 떠나 올 때 원로 목사님이신 김창인 목사님을 뵈는 자리에서 한번 미국에 오시면 만나 뵈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방문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로스앤젤레스로 가

서 목사님을 만나 뵈고 또 집회에도 2회 참석을 했습니다. 또 그곳에서 파라과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시던 분들이 장사하고 계시는 멕시코 국경인 Calexico라는 곳을 방문하여 함께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었습니다.

때마침 도착한 다음날 알라스카 열린문교회로 떠나시는 칠레 선교사로 수고하시던 유재일 목사님 가정을 만나 뵈 수 있었으며, 현재 미국에서 공부하시며

선교연구소를 차리시고 연구하시는 전 충현교회 선교부를 지도하시던 유국남 목사님을 만나 뵈고 선교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수리남에 갈 날이 2개월 정도로 남아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2월부터 한인선교교회의 주일학교를 참관하고 있으며 또 자료들도 구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연행구에 필요한 인형들이 이곳에서는 너무 비싸서 구입할 수가 없으므로 한국에서 구입하여 수리남으로 직접 보내 주시면 수리남에서는 당장이라도 사용할 것입니다. 저희들의 입국 시기보다는 수리남에서 당장 필요한 것임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산교회 박인용 목사님(전화 816-3922, 797-5464)께 말씀 드려면 동산교회에서 매달 \$100를 책을 구입해 보내 주시는 것으로 대신 구입하여 보내 주실 수 있을 줄입니다.

수리남 선교사 안 석 렬

선교지에서 온 소식

